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문장을 부정문이라고 하는데, 부정문에는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이 있다. ‘안’ 부정문은 주어의 의지에 의한 의지 부정이나 객관적인 사실을 부정하는 단순 부정을 나타내고, ‘못’ 부정문은 주어의 능력 또는 상황에 의한 부정을 나타낸다. ‘안’ 부정문에는 부정 부사 ‘안(아니)’이나 용언 ‘아니다’, 보조 용언 ‘아니하다(않다)’를, ‘못’ 부정문에는 부정 부사 ‘못’이나 보조 용언 ‘못하다’를 사용한다. 그리고 명령문과 청유문의 부정에는 보조 동사 ‘말다’를 사용한다.

이 가운데 ‘안’ 부정문은 서술어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서술어가 ‘체언+이다’로 된 경우에는 체언에 보격 조사 ‘이/가’를 붙여 ‘체언+이/가 아니다’의 형태로 나타난다. 서술어가 용언인 경우에는 서술어 앞에 ‘안’을 놓거나 용언의 어간에 보조적 연결 어미 ‘-지’를 붙여 ‘-지 아니하다’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때 전자를 ‘짧은 부정문’, 후자를 ‘긴 부정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짧은 부정문은 용언에 따라 부정문을 만들 수 없는 경우가 있다.

ㄱ. *밥이 안 설익다. / ㄴ. *내가 너를 안 앞서다.
* ‘*’는 비문임을 나타냄.

일반적으로 ‘안’ 부정문은 ㄱ, ㄴ과 같이 서술어로 쓰인 용언이 파생어나 합성어인 경우 짧은 부정문을 만들면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이 된다. 그러나 사동사, 피동사, 접미사 ‘-하다’로 파생된 일부 용언이나 ‘돌아가다, 들어가다’와 같이 보조적 연결 어미를 매개로 한 합성 동사는 어떤 제약도 없이 짧은 부정문을 만들 수 있다.

한편 중세 국어에서의 ‘안’ 부정문은 현대 국어와 달리 수식어인 관형사와 부사의 앞에 ‘아니’가 위치하는 부정도 나타났다. 서술어가 용언인 경우에는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짧은 부정문과 긴 부정문이 모두 사용되었는데, 짧은 부정문은 서술어 앞에 ‘아니’를 사용하고, 긴 부정문은 보조적 연결 어미 ‘-디’를 사용하여 ‘-디 아니하다’의 형태로 나타났다. 한편 접미사 ‘-하다’가 결합한 동사의 어근이 명사나 한자어일 경우에는 어근과 접미사 ‘-하다’ 사이에 ‘아니’를 넣어 짧은 부정문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였다.

35.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짧은 부정문인 ‘그가 모기에 안 뜯기다.’가 자연스러운 이유는 서술어인 ‘뜯기다’가 합성 동사이기 때문이겠군.
- ② 짧은 부정문인 ‘이 자동차가 안 값싸다.’가 자연스럽지 않은 이유는 서술어인 ‘값싸다’가 합성어이기 때문이겠군.
- ③ 짧은 부정문인 ‘그가 약속 시간을 안 늦추다.’가 자연스러운 이유는 서술어인 ‘늦추다’가 사동사이기 때문이겠군.
- ④ 짧은 부정문인 ‘보따리가 한 손으로 안 들리다.’가 자연스러운 이유는 서술어인 ‘들리다’가 피동사이기 때문이겠군.
- ⑤ 짧은 부정문인 ‘할아버지 댁 마당이 안 드넓다.’가 자연스럽지 않은 이유는 서술어인 ‘드넓다’가 파생어이기 때문이겠군.

3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중세 국어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 敢히 노티 아니하더라 [감히 놓지 아니하더라]
- ㉡ 비록 아니 여러 나라라도 [비록 여러 날이 아니더라도]
- ㉢ 妙法이 둘 아니며 세 아닐찌
[묘법이 둘이 아니며 셋이 아니므로]
- ㉣ 塞外北狄인들 아니 오리잇가
[변방 밖의 북쪽 오랑캐인들 아니 오겠습니까]
- ㉤ 나도 現在 未來 一切 衆生을 시름 아니 호리라
[나도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에 대해 시름 아니 하리라]

- ① ㉠과 ㉢을 보니, ‘안’ 부정문이 용언과 체언에 대한 부정을 나타내는 데 모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② ㉠과 ㉣을 보니, ‘안’ 부정문이 평서문과 의문문에서 모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③ ㉠과 ㉤을 보니, ‘안’ 부정문이 긴 부정문과 짧은 부정문에서 모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④ ㉡와 ㉤을 보니, ‘안’ 부정문이 관형사와 부사에 대한 부정을 나타내는 데 모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⑤ ㉢과 ㉤을 보니, ‘안’ 부정문이 단순 부정과 의지 부정을 나타내는 데 모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37.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학습 활동> —

다음은 국어의 음운 변동과 관련된 내용이다. [자료]에서 ㉠~㉤을 확인할 수 있는 예를 모두 골라 묶어 보자.

- ㉠ [ㄱ, ㄷ, ㅂ]으로 발음되는 종성은 ‘ㄴ, ㅁ’ 앞에서 [ㅇ, ㄴ, ㅁ]으로 발음한다.
- ㉡ [ㄱ, ㄷ, ㅂ]으로 발음되는 종성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이외의 자음이 종성에 놓일 때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중 하나로 발음한다.
- ㉣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뀌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 ㉤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자료] 겉웃[거돋], 국밥만[국뺨만], 백분율[백뽀늘]
색연필[생년필], 헛일[헌닐]

- ① ㉠: 국밥만, 색연필, 헛일 ② ㉡: 국밥만, 백분율
- ③ ㉢: 겉웃, 헛일 ④ ㉣: 겉웃, 백분율
- ⑤ ㉤: 백분율, 색연필, 헛일

38.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선생님: 우리말에서 ‘새-, 셋-, 시-, 짓-’은 색채를 나타내는 형용사에 붙어 ‘매우 길고 선명하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입니다. 이 접두사들은 결합하는 형용사의 어두음과 첫음절의 모음에 따라 각각 다르게 사용되는데요, 다음의 자료를 바탕으로 ‘새-, 셋-, 시-, 짓-’에 대해 탐구해 보세요.

자료	㉠	㉡
㉠	새까맣다	시꺼멓다
㉡	새파랗다	시퍼렇다
㉢	새하얗다	시허옇다
㉣	셋노랗다	짓누렇다
㉤	셋말갠다	짓덜겅다

학 생 : _____ ㉠

- ① ㉠을 보니, ‘새-’와 달리 ‘시-’는 결합하는 형용사의 어두음이 된소리일 때에 붙었어요.
- ② ㉡를 보니, ‘셋-’과 달리 ‘새-’는 결합하는 형용사의 첫음절의 모음이 양성 모음일 때에 붙었어요.
- ③ ㉢를 보니, ‘시-’와 달리 ‘짓-’은 결합하는 형용사의 첫음절의 모음이 음성 모음일 때에 붙었어요.
- ④ ㉣와 ㉤를 보니, ‘새-, 셋-’과 달리 ‘시-, 짓-’은 결합하는 형용사의 어두음이 거센소리일 때에 붙었어요.
- ⑤ ㉠~㉢와 ㉣~㉤를 보니, ‘새-, 시-’와 달리 ‘셋-, 짓-’은 결합하는 형용사의 어두음이 울림소리일 때에 붙었어요.

39. <보기 1>은 준말에 관한 한글 맞춤법의 일부이다.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제35항 모음 ‘ㄱ, ㅌ’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려 ‘나/거, 났/졌’으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제35항 [붙임2] ‘ㄴ’ 뒤에 ‘-어, -었-’이 어울려 ‘내, 냈’으로 될 적에도 준 대로 적는다.

제38항 ‘ㄱ, ㄴ, ㅌ, ㄹ’ 뒤에 ‘-이어’가 어울려 줄어질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보기 2>

- 새끼줄을 열심히 ㉠ 꼬았다.
- 올해도 큰집에서 설을 ㉡ 쇠었다.
- 자전거 앞바퀴에 돌을 ㉢ 꺾어 놓았다.
- 그의 표정에서 지친 기색이 ㉣ 보이어 안타까웠다.
- 산 정상에 올라가니 시야가 탁 ㉤ 트이어 상쾌했다.

- ① ㉠: 모음 ‘ㄱ’로 끝난 어간에 ‘-았-’이 어울려 줄어들 수 있는 경우로, ‘꿘다’로도 적을 수 있겠군.
- ② ㉡: 모음 ‘ㄴ’ 뒤에 ‘-었-’이 어울려 줄어들 수 있는 경우로, ‘췌다’로도 적을 수 있겠군.

- ③ ㉢: 모음 ‘ㄴ’ 뒤에 ‘-어’가 어울려 줄어들 수 있는 경우로, ‘뻐’로도 적을 수 있겠군.
- ④ ㉣: 모음 ‘ㄱ’ 뒤에 ‘-이어’가 어울려 줄어들 수 있는 경우로, ‘뻐어’로도 적을 수 있겠군.
- ⑤ ㉤: 모음 ‘ㄹ’ 뒤에 ‘-이어’가 어울려 줄어들 수 있는 경우로, ‘띄어’로도 적을 수 있겠군.

[40~43] (가)는 사용자 참여형 인터넷 백과사전의 일부이고, (나)는 라디오 방송 대담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스마트 시티

이 문서는 여러분이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라일락 님이 2시간 전에 마지막으로 편집함.

목차

- 1. 개요
- 2. 관련 기술
- 3. 사례
- 4. 외부 링크
- 5. 참고 자료

1. 개요 [편집]

도시에 정보통신기술,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해 각종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도시 모델을 의미한다.

2. 관련 기술 [편집]

교통, 환경, 주거 등의 분야에 4차 산업을 대표하는 기술들을 접목한다. 스마트 시티의 관련 기술로는 모바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이 있다.

사물인터넷(영어: Internet of Things, 약어로 IoT)은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

4. 외부 링크 [편집]

스마트 시티 누리집(<https://△△△.go.kr/>)

5. 참고 자료 [편집]

김모, 스마트 시티의 기술적 기반, 인터넷 협회, 2021.6월호.

(나)

진행자: (시작을 알리는 음악)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상식 특특 시간입니다. ㉠ 어제 예고한 대로 오늘 대담의 주제는 **스마트 시티**입니다. 문자 메시지나 방송국 앱으로 질문을 보내주세요. 도시 공학 분야의 전문가이신 ○○○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 네, 안녕하세요. ○○○입니다.

진행자: 반갑습니다, 교수님.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스마트 시티란 무엇인지 여쭙보겠습니다.

전문가: 네,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는데 수거함이 가득 차 불편했던 적 있으시지요? 센서를 통해 생성된 데이터를 활용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거함에 센서를 부착하면 이 센서는 수거함이 일정 수준 만큼 찼을 때 담당 직원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 신호를 받은 직원은 수거 차량에 수거함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수거를 위한 최적 경로까지 알려줍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은 불편함 없이 수거함을 이용할 수 있겠지요. 이처럼 도시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스마트 시티의 아이디어입니다.

진행자: 데이터를 이용해 시민들에게 편리한 삶을 제공할 수 있군요. 그렇다면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나요?

전문가: 네, 센서가 정보 수집 도구가 됩니다. 우리의 생활 공간에는 수많은 센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차량 등이 모두 센서입니다. ㉔ 그동안은 센서를 통해 생성된 데이터가 한곳에 모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클라우드 기술의 발전으로 교통 흐름과 같은 정보들을 한곳에 모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이용하면 건물 간에 남는 에너지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흥미롭네요. 말씀하신 것 중에 남는 에너지를 교환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 어떤 건물에 태양광 전지판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㉕ 그것을 통해 해당 건물은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사용한 후에는 남은 에너지가 있을 수 있지요? 만약 건물에 에너지를 보관하는 저장고와 에너지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에너지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네요. 지금 앱을 통해 가장 많은 분들이 질문하신 건데요, 스마트 시티 기술이 이미 적용된 도시가 있을까요?

전문가: 해외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르셀로나의 A 지구에는 스마트 가로등이 있습니다. ㉖ 이 가로등은 무선 인터넷의 공유기 역할을 하면서 소음 수준과 공기 오염도까지 분석합니다. 가로등에 설치된 센서가 인구 밀집도까지 파악하여 자동으로 밝기를 조절함으로써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스마트 시티의 기술들이 현재 많은 도시들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방금 △△ 시내에 통제되는 도로가 있다고 해서요, 그곳을 지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교통 상황 전해 드리고 대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안내 방송으로 이어지는 음악)

40.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보 구성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는 문자와 이미지가 쓰였다는 점에서, (나)는 음성과 음악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복합 양식적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① ○ (가)와 (나)는 모두 선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보 제공자가 정보 수용자의 반응을 확인하며 정보 제시 순서를 조정한다. ②
정보 유통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는 (나)와 달리 시의성을 지니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③ ○ (나)는 (가)와 달리 정보 제공자와 정보 수용자 사이의 소통이 일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④ ○ (가)와 (나)는 모두 정보를 가공하여 전달하는 데 시·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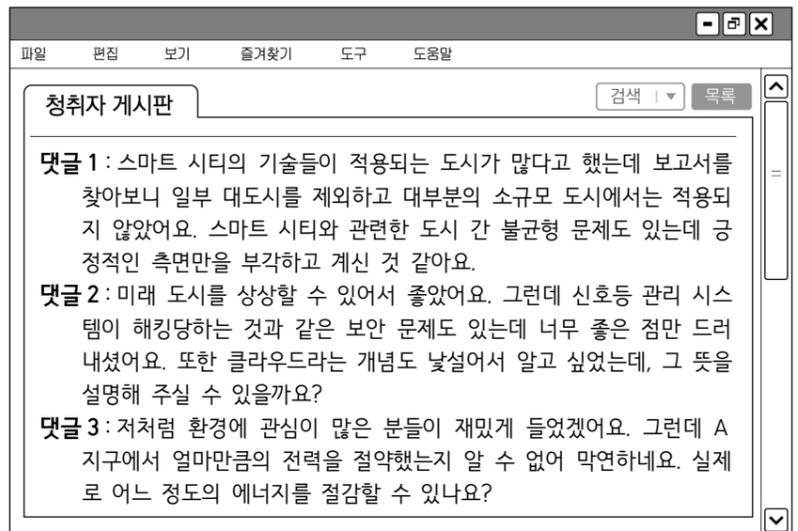
41.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보 수용자가 문서의 내용 중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목차를 제시하고 있다.
- ② 정보 수용자가 문서 내용과 관련된 웹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이퍼링크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 ③ 인터넷 사용자들이 정보 생산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서 내용을 입력하거나 수정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 ④ 정보 생산자가 제공한 문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서 내용의 근거가 되는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있다.
- ⑤ 정보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들의 문서 열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문서가 작성된 이력을 제공하고 있다.

42. ㉑~㉗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의존 명사 ‘대로’를 사용하여 청취자에게 예고한 것과 같이 ‘스마트 시티’가 대담의 주제임을 밝히고 있다.
- ② ㉒: 부사격 조사 ‘에’를 사용하여 수거함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이 ‘수거 차량’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③ ㉓: 피동사 ‘모이다’를 사용하여 행위의 주체보다는 행위의 대상인 ‘데이터’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고 있다.
- ④ ㉔: 지시 대명사 ‘그것’을 사용하여 직전 발화에서 이미 언급한 대상인 ‘태양광 전지판’을 가리키고 있다.
- ⑤ ㉕: 연결 어미 ‘-면서’를 사용하여 ‘공유기 역할’이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다른 기능도 수행함을 드러내고 있다.

43. 다음은 (나)를 들은 청취자들이 청취자 게시판에 남긴 내용이다. 청취자의 수용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댓글 1은 자신이 추가로 수행한 탐색 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를 근거로 대담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 ② 댓글 2는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대담에서 제공하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질문의 형식으로 요청하고 있다.
- ③ 댓글 3은 교수가 제시한 사례와 관련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은 점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댓글 1과 댓글 2는 모두 대담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이 있음을 언급하며 대담의 관점이 한쪽으로 치우쳐 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⑤ 댓글 2와 댓글 3은 모두 대담이 특정 관심사를 지닌 청취자에게 유용하다는 점을 밝히며 새로 알게 된 내용을 다른 상황에 적용하고 있다.

[44~45] (가)는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 '준업'이 제작해 인터넷 공유 문서에 올린 발표 초안이고, (나)는 (가)의 세 번째 슬라이드에 대해 학생들이 휴대 전화 메시지로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친구들에게 거북목 증후군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을 담아 보았어.

1. 거북목 증후군이란?

거북목 증후군의 정의
잘못된 자세로 인해 목, 어깨의 근육과 인대가 늘어나 통증이 생기는 것으로, 사람들의 목이 거북이의 목처럼 앞으로 구부러지는 증상

정상목과 거북목 비교

거북목 증후군 현황

연령대	비율
10대	5%
20대	13%
30대	19%
40대	21%
50대	18%
60대	24%

거북목 증후군은 왜 생기고,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소개하기 위해 두 번째 슬라이드를 구성해 보았어.

2. 거북목 증후군의 원인 및 증상

거북목 증후군의 원인

- 고개를 숙이고 컴퓨터 사용
- 어깨를 구부리고 스마트폰 사용
- 턱 괴고 앉기
- 옆드러 책 읽기

거북목 증후군의 증상

- 거북목은 목, 어깨 근육을 뻣뻣하게 긴장시켜 근육 통증 유발
- 목뼈가 비틀어져 경동맥이 눌러 뇌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두통 유발

거북목 증후군의 진단 방법과 예방법을 세 번째 슬라이드로 만들어 보았어.

3. 거북목 증후군 예방법 및 진단 방법

거북목 증후군 진단 방법

일반적으로 거북목 증후군은 등이 굽었거나 뒷목이 아픈 경우 의심해 볼 수 있다. 또한 어깨가 틀어졌고 경직되었거나, 옆에서 볼 때 목이 쪽 빠져 있으면 거북목 증후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거북목 증후군 예방법

- 올바르게 앉은 자세 유지하기
- 적절한 휴식 시간 보내기 (예: 1시간 공부, 10분 휴식)
- 자주 스트레칭 하기 (예: 목 뒤로 젖히기)

(나)

거북목 증후군 발표 단체 대화방

['준업' 님이 '유준', '한비', '세현', '민수', '가영' 님을 초대하였습니다.]

준업: 애들아, 안녕! 인터넷 공유 문서에 올린 발표 자료 초안에 대해 조언을 얻고 싶어서 이렇게 단체 대화방을 열었어.

유준: 세 번째 슬라이드에 거북목 증후군 증상을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어떨지 이야기 나누고 싶었어.

한비: 오~그렇게 하면 발표를 듣는 친구들이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겠어. 그리고 친구들이 거북목의 정도를 3단계 척도로 표시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

세현: 좋은 방법이야! 올바른 자세에 대한 시각 자료도 추가하는 건 어때? 나는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파악이 잘 안 되거든.

민수: 동의해. 올바른 자세를 알려줄 수 있는 시각 자료를 제시하면 친구들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어.

유준: 그리고 애들아, 세 번째 슬라이드의 제목이 소재목의 내용 순서와 일치하지 않아서 어색하지 않아?

가영: 맞네. 세 번째 슬라이드의 제목을 제시된 내용 순서에 맞게 수정하면 자연스러울 것 같아!

한비: 두 번째 슬라이드와 형식적 통일성을 맞추기 위해 거북목 증후군 예방법의 내용도 번호를 붙여 제시하는 것은 어떨까?

민수: 정말 좋은 생각이다.

세현: 그러면 발표 자료 형식이 통일될 수 있을 것 같아. 준업아, 수정할 수 있지?

준업: 당연하지. 조언해 줘서 고마워!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종합해서 수정해 볼게.

44. (가)에 나타난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대비되는 그림 자료를 제시하여 정상목과 거북목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그래프를 활용하여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거북목 증후군 환자 발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글과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거북목 증후군의 증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글자의 크기와 굵기를 달리하여 거북목 증후군 예방법의 중요한 정보를 부각하고 있다.
 - 모든 슬라이드에서는 각 슬라이드의 중심 내용을 항목화하여 안내하고 있다.

45. (나)를 참고하여 (가)의 세 번째 슬라이드를 수정한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거북목 증후군 진단 방법 및 예방법

거북목 증후군 진단 방법

예	아니요
등이 굽었다.	
뒷목이 항상 아프다.	
어깨가 틀어졌고 경직됐다.	
옆에서 볼 때 목이 쪽 빠져 있다.	

거북목 증후군 예방법

- 올바르게 앉은 자세 유지하기
- 적절한 휴식 시간 보내기 (예: 1시간 공부, 10분 휴식)
- 자주 스트레칭 하기 (예: 목 뒤로 젖히기)

모니터 높이 = 눈높이
최대한 모니터와 멀리 (40cm 이상)
곧게 편 허리

-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